

“불자여 깨어납시다” 청화 스님 초청법회

개교 20주년을 맞은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은 전주 완산불교회관에서 10월 26일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불자여 깨어납시다’를 주제로 진행된 법회에서 청화 스님은 “권제와 명예는 누더기에 불과하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물질에 매혹돼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종속되지 않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활하고 판단해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고통과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초청법회는 매일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열린다. 11월에는 분각 스님(중앙승가대)이 법문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부가 종교자유 보장”

박광서 교수 주장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이 종교편향 방지 입법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교편향의 원인을 살펴 뿌리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기독교 성서화 및 종교편향’에 대한 강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지역 불교실무자들 모임인 육화포럼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0월 24일 무각사 불교대학에서 박광서 교수(서강대)를 강사로 ‘종교차별 금지와 정교분리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박 교수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개인의 내면적인 종교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광서 교수는 “공무원들의 종교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서화 사업과 선교행위를 하는 일부 공직자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석 군의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 된 학원 내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해 “공교육 현상이라는 특수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차별과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라도 공교육시스템에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삶의 길 위에 음악의 혼 덧입히다

화엄사 화엄제 2008-길을 묻다

“보살의 길이 무엇입니까?”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찾아 헤매며 ‘하나의 길’을 묻는다. 그 가운데 문수보살은 “그대 모든 국토에 두루하며 오랜 시간 보현행을 닦아 보리 도를 이루리라” 답했다.

화엄본찰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10월 25일 ‘화엄제2008-길을 묻다’ 영성음악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영성음악가들은 각자의 삶에서 길 묻기를 통해 체험한 ‘눈 맑힘’의 음악을 선보였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은 법계로 향하는 선재의 화두를 띄우며 1000여 명의 관중과 함께 고요한 야단법석을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레민 외즈지미(Sadreddin Özcimi)의 영성노래가 이슬람 전통 악기 네이(Ney)와 함께 연주되면서 화엄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스코틀랜드 출신 영성음악가 데바 탐마요(Deva Tanmayo)와 인도 전통 타악기 타블라 연주자 마니쉬 비아스(Manish Vyasa)는 힌두교에서 인간존재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비슈누(Vishnu)를 찬미한 ‘옴 나모 나라야나(Om Namo Narayana)’를 노래했다. 한국 전통의 동해안별신굿과 진도 굿 구음이 영성 음악과 어울려 풍양의 감성을 집약한 새로운 명상음악의 장르를 선사하기도 했다.

음악제의 대미는 ‘남에게로(박치음 작곡)’ 음악이 장식했다. “시방 삼세에 평등하지 않은 것 없으니 평등가는 길도 오는 길도 없다”는 주지



구례 화엄사는 10월 25일 ‘화엄제-길을 묻다’를 성료했다. 1000여 명의 관중과 함께 영성음악의 세계를 교감하는 자리였다.

스님의 계승에 이어 소담한 연꽃 한송이가 객석으로 이동해 스님에서 재가자로 이어지는 장엄한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주지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발원하며 “이번 화엄제 ‘길을 묻다’는 첫회 ‘첫발자국’과 ‘길떠남’의 연장으로 연기를 주제로 한다. 화엄 도량에서 53선지식의 구법을 따르는 여정이 전쟁과 기아 등으로 결핍된 인류의 마음을 정화해 모든 생명체는 하 나라는 영성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도선문화제 지역문화축제로” 영암 도갑사, 도선 국사 문화제



10월 25일 영암 도갑사에서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열렸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고려건국에 큰 영향을 미친 도선 국사 문화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도선 국사 탄신 1181주년을 기념해 10월 25일 경내에서 ‘제3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을 비롯해 법각 스님(대흥사 주지) 등 스님들과 김일태 영암군수, 유선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해성 스님의 차 시연회로 시작된 행사는 암도 스님(前 포교원장) 초청 특별강연과 기념법요식, 산사음식공양,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선 국사 문화예술제가 불교 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천천클럽·우리는선우 10년

“작은정성 모여 세상 훈훈하게”

“작은 촛불이 모여 어둠을 물리치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을 만듭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이웃에게 웃음을 주며, 한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밝힙니다.”

10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군산 호원대 교수·사친)과 ‘전주 우리는선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천천클럽은 1999년 전주지역 불자 30여 명이 결성한 ‘우리는선우’ 회원들이 1000명의 회원이 매달 1000원씩을 모아 천수천안 관세을 보살의 대자대비 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오종근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끔찍한 이들이 많다. 커다란 잔 굵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원이지만 작은 물 한 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작은 정성이 모여 세상을 훈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천클럽은 지난 10년간 목사, 신부, 대학총장, 교수, 직장인, 주부, 유치원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800여 회원들이 8000만원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와왔다. 종교, 지역색을 떠나

따뜻한 마음 갖기 운동과 소액 기부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 공감한 이들은 전주 천천클럽을 벤치마킹해 서울, 충주, 제천 익산 등 타 지역과 단체에서 줄지어 창립했다.

작은 금액으로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주 우리는선우’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천천클럽 후원금이 오로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우리는선우 회원들은 소시지 발행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했다.

“회원들이 지급한 용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일부를 재보사한 시각 장애인 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종근 회장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모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시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오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배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자 불에서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현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용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당, 각종스포츠센터, 헬스클럽,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을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할 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행통되게 비방의 “옴”자와 백연화를 넣고 생면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무도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면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치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면행일을 알려 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반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